



작지만 강한 인쇄사 ‘광성기획인쇄’ “철저한 김리로 불량률 최소화 지향”

인쇄가 있는 곳에 문화가 있고, 문화가 있는 곳에 인쇄가 있다. 곧 어떤 문화도 인쇄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이에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원사를 찾아가 인쇄노하우에 대해 들어본다. 이번호의 주인공은 총무로에 위치한 광성기획인쇄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1996년 설립된 광성기획인쇄(대표 배동석)는 KBA 라피다74 4색 반절인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홍보 카탈로그, 박스 등 다양한 인쇄물을 제작·납품하고 있다. 기획사무실의 인쇄물과 인쇄사 하청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은행 CD기를 제작하는 청호컴(주), 세차기를 제작하는 한림기계 등의 홍보 카탈로그를 비롯해 휴온스제약 등의 박스물도 제작하고 있다.

배동석 대표의 최대 고민은 인쇄경기 침체로 인해 인쇄물이 줄어들고 있는데다 합관업체의 가격 덤핑으로 인해 인쇄물 가격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배동석 대표는 “인쇄경기가 많이 어려워져서 고민이 많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어렵다 어렵다 해도 일은 많았는데, 지금은 여름과 가을에는 작업하는 인쇄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인쇄물량이 줄었다. 게다가 예전에는 5천부 정도는 기본으로 인쇄하던 곳에서도 2천부로 줄이는 등 갈수록 인쇄물량이 줄고 있다. 이러한 인쇄경기 침체가 언제까지 갈 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철저한 감리·친절한 태도가 중요”

배동석 대표는 올해 64세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인쇄한길만 걸어왔다. 서울 토박이인 배동석 대표는 고등학교 졸업 후 통장용지 인쇄로 유명한 웅선비즈니스에서 인쇄기술을 배웠다. 그 후에는 포장인쇄로 유명한 삼원인쇄에서 인쇄 총책임을 맡으며 인쇄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이후 1996년 하이델베르크 4색 인쇄기를 도입해 광성기획인쇄를 설립했다. 2003년에는 KBA 라피다74 인쇄기를 도입해 인쇄 품질과 특수인쇄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도 했다. 라피다74 인쇄기는 52×74cm 인쇄용지 규격에서 다양하고 경제성 있는 인쇄물 생산이 가능해 패키지를 비롯한 다양한 인쇄를 할 수 있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데 유용하다. 동급의 다른 인쇄기와 비교해 범용 목적의 그림퍼대를 장착하고 있어 두꺼운 판지의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인쇄용지를 사용하기 위해 그림퍼대를 수작업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광성기획인쇄에서 제작 공급하고있는 다양한 인쇄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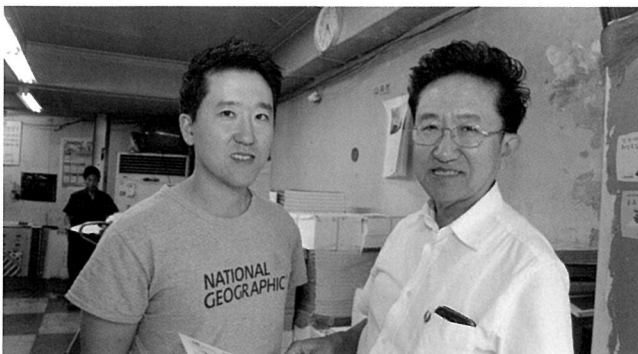
배동석 대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당시만 해도 인쇄 경기가 좋았다. 특히나 기술을 배우면 사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인쇄사에 취직해 경험을 쌓았다. 나 역시 인쇄경기가 좋았던 1980~1990년대까지 인쇄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경험을 쌓다가 창업하게 됐다. 1996년 47살 때 창업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인지 큰 재미는 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배동석 대표는 “하청을 주로 하고 있는 우리 인쇄사는 다른 대형 인쇄사보다 더 어려움이 많다. 그래도 자신이 맡은 바 책무를 최선을 다해 처리한다면 고객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철저한 감리로 매수와 불량률 최소화하는 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있는 등 품질 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감리를 보러 오는 고객들에게 항상 친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녹록치 않은 현실, 아들과 함께 극복”

광성기획인쇄에는 배동석 사장을 비롯해 5명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중에는 아들인 배현군이 있는데, 2011년부터 함께 근무하고 있다. 배동석 사장은 “내 나이가 64세로,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남아있지만 슬슬 건강이 염려되는 나이다. 그래서 2년전부터 아들과 함께 인쇄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작은 인쇄사를 운영하다보니 결코 녹록치 않은 현실에 배동석 사장은 안타깝기만 하다.

배동석 사장은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잡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게다가 이렇게 경제상황도 어려워니 아들에게 짐을 지운 것 같은 기분도 든다.



배동석 사장과 아들인 배현군

앞으로 인쇄사 경영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기도 하다. 아들과 함께 인쇄업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래 인쇄산업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면 어느새 믿음직한 마음이 생긴다”고 말했다.

남인회 회장 등으로 활동

배동석 사장은 총무로에서 오랫동안 인쇄를 해 온만큼 인쇄단체 및 모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남인회 회장직을 연임해 맡고 있는데, 남인회는 인쇄인의 화합과 업계 단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인쇄인 모임이다. 특히 오는 10월 25일에는 독도의 날의 맞아 2박 3일 동안 울릉도와 독도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배동석 사장은 “최근 몇 년전부터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등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다양한 국제적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독도에 대한 의미를 가슴속 깊이 되새기기 위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여행을 기획하게 됐다. 의미 있는 여행이니만큼 많은 회원들이 참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동석 사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인쇄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단체를 통해 인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어려울 때 서로서로 도와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인쇄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인쇄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인쇄문화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길 36(충무로 47)

전화 | 02-2271-3878 팩스 | 02-2271-3378

광성기획인쇄 연혁

1996년	광성기획인쇄 설립
2003년	KBA 4색 인쇄기 도입
2010년	남인회 회장 선임



두꺼운 종이도 인쇄가 가능한 라피다 74